

블리자드 야심작... '모바일 지옥의 문' 열린다

디아블로 시리즈 첫 다중접속게임 새로운 스토리로 지옥 악마와 맞서 모바일·PC 넘나들며 특별한 경험 전 세계 3000만명 넘게 사전등록 디아블로 25년 역사에 한 획 기대

모바일 지옥의 문이 열린다.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야심작 '디아블로 이모탈'이 6월3일 드디어 출격한다. 액션 역할수행게임(RPG)이라는 장르를 새로 쓴 '디아블로' 시리즈의 지적 재산권(IP)을 활용한 모바일게임이다. 1996년 12월 첫 게임이 출시돼 25주년을 맞은 디아블로 시리즈는 깊이 있는 서사와 장대한 판타지 경험으로 오랫동안 전 세계 팬들을 매료시켜 왔다. 2000년 6월 선보인 '디아블로2'는 명작 반열에 올랐고, 2012년 5월 론칭한 '디아블로3'는 '영혼을 거두는 자' 확장팩 출시 후 3000만 장의 판매량을 달성, 메가 히트작이 됐다. '디아블로2' 및 확장팩 '파괴의 군주' 리마스터 버전 '디아블로2: 레저렉션'은 지난해 9월 출시돼 전 세계적으로 500만 명 이상의 플레이어들이 구매했다.

●시리즈 첫 MMO 게임
디아블로 이모탈은 이런 디아블로 시리즈 중에서도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초기 단계부터 모바일용으로 기획한 블리자드의 첫 게임이면서, 디아블로 시리즈 중 첫 다중접속(MMO) 게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전 반응도 뜨겁다. 전 세계 3000만 이상의 게이머들이 사전 등록을 마쳤다. 디아블로 이모탈은 디아블로2와 디아블로3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담고 있다. 게이머들은 완전히 새로운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불타는 지옥의 악마들에 맞서 싸우게 된다.

블리자드는 디아블로 이모탈이 디아블로 프랜차이즈 25년 역사에 한 획을 그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모바일게임이지만 플랫폼과 상관없는 트리플 A급 경험을 줄 것이라 기대다. 이 게임은 PC로도 즐길 수 있다. 게이머들은 PC와 모바일 기기를 매끄럽게 넘나들며 플랫폼에 상관없이 전 세계 유저들과 함께 힘을 합쳐 악마와 맞설 수 있다.

플랫폼 간 크로스플레이는 물론 진척도 공유(게임 진행 데이터 동기화)까지 모두 지원한다. PC 버전은 오픈 베타로 선보인다. 베타 기간 동안 모든 콘텐츠를 즐길 수 있으며, 종료 후에도 게임 진척도는 유지된다. 디아블로 이모탈은 모바일의 터치 조작 외에도 게임패드 및



컨트롤러를 지원한다. PC를 선호하는 플레이어들은 디아블로 시리즈 특유의 포인트 앤 클릭 키보드와 마우스 기능을 비롯해 시리즈의 첫 'WASD' 이동 기능 또한 사용할 수 있다.

마크 이바라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사장은 "처음부터 모바일용으로 기획한 최초의 블리자드 게임인 만큼, 디아블로 시리즈의 명성에 걸맞은 작품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했다"며 "수많은 테스트를 거치며 다양한 피드백을 반영했고, 그 결실을 플레이어들에게 선보일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핵심 게임 경험 무료

게이머들은 디아블로 시리즈의 상징 과도 같은 6개 직업인 아만왕사, 성전사, 악마사냥꾼, 수도사, 강령술사, 마법사 중 하나를 선택해 8개 지역과 대도시 서무원정지를 탐험하게 된다. 프랜차이즈의 터줏대감인 데커드 케인같은 친숙한 캐릭터는 물론 처음 접하는 캐릭터들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다중접속액션역할수행게임(MMOA RPG) 장르를 표방하는 만큼 기존 시리즈에서 찾아볼 수 없던 소셜 경험도 제공한다. 유저들은 최대 8인의 전투부대를 꾸려 지옥성물한 공격대 우두머리에 도전하고, 최대 150명으로 이뤄진 클랜에 가입해 다양한 업적에 도전할 수도

있다. 진영 기반의 탄탄한 PvP(개인 간 전투) 시스템도 지원한다. 게이머들은 '투쟁의 굴레'에서 함께 힘을 합쳐 전투에 참전하게 되고, 서버 최상위 유저는 '영원의 왕관'을 획득해 불멸단의 지도자가 된다. 이후 치열한 1 대 30 대결을 포함한 다양한 모드를 통해 끊임없이 상대 진영에 맞서 싸우며 권력을 지켜내야 한다.

디아블로 이모탈은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부분 유료화 게임이다. 특히 핵심적인 게임 경험은 누구나 항상 무료로 즐길 수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게임·IT

스포츠동아 2022년 5월 30일 월요일 15



LG유플러스 소속 교육생들이 광고어 체험관에서 단선된 광케이블을 수작업으로 연결하고 있다. 사진제공 | LG유플러스

LGU+, 품질안전 종합훈련센터 공개

네트워크 안전체험관 등 4개의 훈련장에 홈 IoT 인증센터 등 품질 개선 실험실 갖춰

LG유플러스는 품질안전 종합훈련장인 네트워크 안전체험관과 품질검증 시험시설을 최근 공개했다. 대전 R&D 센터 내에 위치한 품질안전 종합훈련센터는 LG유플러스 임직원과 협력사 구성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고객에게 최상의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교육을 위한 시설인 ▲네트워크 안전체험관 ▲광고어 체험관 ▲무선·HFC(광동축융합망) 실습장 ▲IP·소호 실습장 등 4개의 훈련장,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인 ▲홈 IoT(사물인터넷) 인증센터 ▲네트워크연동시험실 등 2개의 시험실로 구성돼 있다. 이곳에선 실제 현장사례에 기반한 교육을 네트워크 관계, 품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시행 중이다.

LG유플러스는 최근 ESG 경영 관점에서 안전보건 경영을 체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CSBO(최고안전관리책임자)를 신설하고, 무재해 사업장 구축을 다짐하는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발표했다. 매월 CEO(최고경영자) 주관 '품질안전관리 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

김준혁 LG유플러스 네트워크부문장(전무)은 "대전 R&D 센터는 네트워크 장애발생 제로, 안전사고 제로를 견인함으로써 고객에게 사랑받는 일등 네트워크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며 "품질에 대한 고객의 페인포인트를 없애면서도 무사고·무장애·무결점 사업장을 만들고 나아가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SKT, MEC 기반 가상화 플랫폼서 지상파 송출 성공

SK텔레콤은 KBS, 싱글레어와의 합작회사 캐스트닷에라와 협력해 세계 최초로 5G MEC(모바일 에지 컴퓨팅)·가상화 기술을 활용한 지상파 방송 송출에 성공했다. 5G MEC는 서비스 이용자와 가까운 기지국에 소규모 데이터센터를 배치해 초저지연 통신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3사는 지난해 MEC 기술을 활용한 지상파 방송 송출 시스템 가상화 및 AI(인공지능)반도체 '사파온'을 적용한 AI 업스케일러를 통해 방송 영상을 고품질로 변환하는 1차 시연을 마쳤다.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5월 30일 (월) 음력: 5월 1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p>행운색: 청색 길방: 동</p> <p>무슨 일에 있어서나 외견상의 화려하고 성대한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신중해야 한다. 물질이나 금전적으로 충분치 못한 데도 호화롭고 사치스런 생활을 바라는 욕망이 강할 때이다. 검소한 생활을 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p>	<p>행운색: 흰색 길방: 서</p> <p>만사가 흥행하는 운이나 큰일은 할 수가 없다. 너무나 소극적이라고 할 만큼 저자세로 일에 임하면 크게 길할 것이다. 모든 일에 도를 지나치면 도리어 재해를 입기 쉬운 때이므로 특히 대인관계 등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겠다.</p>	<p>행운색: 적색 길방: 남</p> <p>작은 일은 뜻대로 되지만 큰일은 좌절되는 경우가 있다. 표면은 좋아보여도 내면은 불편하며 현재 무슨 일이나 분명치 않아 단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때이다. 그러나 오늘은 운이 열리는 날이다. 힘차게 시작하라. 다만 큰 욕심은 버려라.</p>	<p>행운색: 적색 길방: 남</p> <p>계획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며 직업이나 학업을 통해 보다 확고한 자신의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시기이다. 매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거래처에서 소식이나 온다.</p>	<p>행운색: 흰색 길방: 서</p> <p>성실함이 있어야 크게 길하다. 허물이 없고 마음을 바르고 끈게 가져야 한다. 아무 이득도 없는 일을, 주위의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관철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물질적으로는 손해지만 나중에는 이익이 되어 돌아온다.</p>	<p>행운색: 청색 길방: 동</p> <p>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처음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나중에는 많은 사람의 협력을 얻어 대사업을 완성시킨다. 사람들을 많이 사귀게 된다. 남보다 빨리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로 가서 협력을 구하라.</p>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p>행운색: 청색 길방: 동</p> <p>주위의 상황이 불리하여 뜻을 이룰 수 없는 때이다. 함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기 몸을 돌아보고 인력을 연마하며 불리한 시기를 넘겨야 한다. 모든 일에 모험을 피해야 하며 내부의 정리에 힘써야 할 때이다. 술을 조심하라.</p>	<p>행운색: 흰색 길방: 서</p> <p>결단력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결행할 필요가 있다. 명예가 따르고 금전적인 여건도 아울러 발전하니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밀고 나가는 행동력과 확고한 자기노력이 뜻을 실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자유분방한 날이다.</p>	<p>행운색: 검정 길방: 북</p> <p>마음먹은 대로 일을 성취할 수가 있는 강한 운세이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라. 하지만 서로가 뜻을 같이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크게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오늘은 천살일이다. 근간에 대한 변화이니 신중하고 물기를 거둬야 한다.</p>	<p>행운색: 검정 길방: 북</p> <p>운세 자체가 별로 좋지 않다. 답답하고 안타깝겠지만 적당한 시기가 올 때까지 은인자중함이 상책이다. 성급한 마음으로 서두르면 심중팔구 큰 낭패를 당한다. 이러한 시기에는 지구력을 가지고 참는 것만이 개운을 앞당기는 최선의 방법이다.</p>	<p>행운색: 흰색 길방: 서</p> <p>모든 일에 과감하게 나아가지만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일을 벌이면 실패하기 쉬운 때이다. 지출이 많을 때이니 되도록이면 저축에 힘써라. 너무 밀고 나아가면 상대가 주춤하고 멈춘다. 상대가 먼저 움직일 때를 기다리며 생각하라.</p>	<p>행운색: 흰색 길방: 서</p> <p>되도록 무리를 하지 말고 쉬운 길을 골라서 식견 있는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함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기 몸을 돌아보고 인력을 연마하며 위험한 때가 지나갈 기다려야 한다. 운이 막혔으니 바라지 말라.</p>

오늘의 날씨			30일(월)		
서울 60/60	인천 60/60	춘천 70/70	19 24	18 22	18 24
강릉 60/60	대전 60/60	전주 60/60	19 24	18 24	19 22
광주 60/20	대구 60/30	부산 60/30	19 24	19 25	19 22
창원 60/30	제주 30/30	지역	18 23	20 25	강수 확률 (오전/오후) 최저 최고기온 C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835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립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숙옥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월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